



A Review of Empirical Aesthetics on Aesthetic Preferences: with a Focus on Artwork, Beholder, and their Interaction*

Jiwon Song¹, Chai-Youn Kim^{1*}

¹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field of empirical aesthetics has emerged for years based on experimental psychological methods to explore aesthetic preferences. This review seek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s in which empirical aesthetics research has evolved, focusing on artwork, beholder, and their interaction. Initially, the prevailing perspective was that aesthetic preferences would be determined by universal aesthetic principles inherent in artworks. However, some studies argued that aesthetic preferences are subjective and individualistic. Subsequent research proposed a more advanced viewpoint, suggesting that aesthetic preferences are form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factors of artworks and beholders. Nevertheless,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factors has mostly been addressed in late cognitive processes of aesthetic appreciation, neglecting aspects of interaction in early perceptual processes. Building upon this, the review aims to pinpoint the weakness of current experimental research and aesthetic appreciation models in empirical aesthetics, and to propose new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of study.

Keywords: empirical aesthetics, art, preference, artwork, beholder

1차원고접수: 23.09.13; 수정본접수: 23.11.21; 최종게재결정: 23.11.23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and the use is non-commercial.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이 선택들의 이면을 들추어보면 우리는 개개인의 미적 선호를 기반으로 많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색상을 고려하여 오늘 입을 셔츠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형태를 고려하여 소파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카페를 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적인 판단들은 우리의 사고 과정에 매우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기도 한다(Palmer et al.,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적 선호 및 판단의 양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선호할까? 특히, 심미성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선호의 특징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미적 선호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 오랜 시간동안 철학, 역사학, 비평,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미적 선호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기존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과학적 방법론을 새롭게 적용하여, 철학, 과학, 그리고 심리학의 교차점에서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학제적 접근에 기반한 이 새로운 학문 분야는 ‘실험미학(empirical aesthetics, experimental aesthetics)’이라는 이름 아래, 미적 선호와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School of Psychology at Korea University in 2021).

† 교신저자: 김채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E-mail: chaikim@korea.ac.kr

그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을 탐구해오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Palmer et al., 2013; Shimamura, 2011).

사람들의 미적 선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초기 실험미학 연구자들은, 작품 요인을 탐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작품에 내재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의 원리에 의해 미적 선호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Vessel & Rubin, 2010). 그러나 일부 연구들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몇몇 연구자들은 미적 선호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 개개인별로 미적 선호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이 가진 속성에 따라 미적 경험과 미적 선호에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Eysenck, 1940; Furnham & Walker, 2001a; 2001b).

그러나 작품 요인과 감상자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두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이에 일부 실험미학 연구자들은 작품과 감상자 요인의 이분법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관점을 제시했다(Ingarden, 1985; Mather, 2014; Merleau-Ponty, 1964, Song et al., 2021). 즉, 개인의 미적 선호는 작품과 감상자 요인 중 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감상자 요인이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체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렇듯 실험미학 연구들은 다양하게 세분화되며, 이에 따라 중요한 실험적 연구 결과들도 빠르게 축적되어 오고 있다(Leder & Nadal, 2014; Skov & Nadal, 2020).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실험미학 연구가 발전해온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수많은 실험미학 연구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 할 수 있는 작품과 감상자 요인의 측면에서 실험미학 연구들의 발전 흐름을 조망해보아야 한다. 해당 축을 중심으로, 넓은 시야에서 실험미학 연구 성과를 조망하는 것은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련 연구들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개관논문의 대상 연구들은 시각 자극을 활용한 연구들로 국한시켰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미적 경험을 탐구한다는 접근과 맥을 같이 하여(Pearce et al., 2016) 시각 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기하학 형태나 추상적 패턴과 같은 단순화된 도형, 일상적인 디자인, 건축 공간 등 다양한 시각 자극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미적 선호는 아름다움, 호감, 즐거움, 흥미와 같은 심미적 즐거움과 관련된 미적 반응을 반영하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

문은 행동적 실험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과 아름다움의 신경적 기반을 밝히고자 고안된 ‘신경미학(neuroaesthetics, Skov & Vartanian, 2009)’의 인지신경과학적 실험 방법들과 구분된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번째 절에서는 작품 요인에 중점을 둔 관점 하에서 초기 실험미학 연구들이 발전해온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실험적 연구 결과들을 작품이 가지는 세부 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러한 세부 요소들은 주로 색, 곡선, 복잡성과 같은 초기 지각적 세부특징들을 위주로 한다. 두번째 절에서는 감상자 요인이 미적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실험적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며, 예술 전문성 혹은 성격과 같은 감상자가 지니는 주요 요소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감상자 요인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선행 연구 결과를 다루며, 이는 주로 미적 감상 과정 중 후기 인지적 과정에서 논의된다. 이후 초기 지각적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 간과되어 온 점을 짚어보고, 향후 실험미학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논문을 맺고자 한다.

작품 요인

역사적 배경

Gustav Fechner(1801-1887)는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예술과 미학에 대해 실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방법적인 틀을 개발하였다(Leder & Nadal, 2014; Palmer et al., 2013). Fechner는 아름다움에 대한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다루는 대신, 기본적인 지각적 세부특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직사각형 같은 단순한 형태들과 색상에 대한 선호 판단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연구함으로써 Fechner는 우리의 미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적인 세부특징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기본 지각적 속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복잡한 표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상향적 접근 방식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미학에 대한 경험적 접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Fechner의 기초적이고 상향적 접근 방식의 대안으로써 1900년대 초 게슈탈트 심리학이 등장하였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지각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소개하였다(Koffka, 1922). 즉, 우리가 대상을 지각할 때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각 요소들의 조직화된 구조를 지각한다고 보았으며, 지각은 기본적인 요소들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지각이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규칙

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제안하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개별 구성 요소가 아닌 기본 지각 속성들의 전체적인 구성 및 구조라고 하였다.

Rudolf Arnheim(1904-2007)은 게슈탈트 원리를 시각적 미학에 적용하고 예술 작품이 이러한 지각적 조직화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Arnheim, 1974). 그는 예술가들이 균형과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각적 원리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원을 사각형의 중앙에 배치하면 균형을 유지하고 긴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반면 원을 중앙에서 벗어나게 배치하면 불균형을 유발하여 긴장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지각적 속성의 조직과 역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까지 이미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분야에서 통합적인 이론적 틀은 부족하였다. Daniel Berlyne(1920-1975)은 생물심리학적인 관점을 도입하였고, 이 관점은 예술에서 비롯되는 쾌뿐만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심에 대한 동기로 작용하는 각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Berlyne, 1974; Leder & Nadal, 2014). 이러한 이론적 틀은 후속 연구를 촉진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관련된 실험적 증거가 축적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정밀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Berlyne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와 집합적 속성(collative properties)에 해당하는 새로움, 복잡성, 놀라움 등을 주로 다루었다(Berlyne, 1958; 1970).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작품이 가진 집합적 속성이 많을수록 감상자의 각성 수준은 증가하며,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정도의 각성을 유발하는 작품을 가장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중간 수준의 새로움, 복잡성,

놀라움을 가진 작품을 선호하며, 이러한 속성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작품 요인 선호에 대한 연구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서, 예술 작품이 가진 요인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미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였다(그림 1).

대비와 선명도. 먼저, 미적 선호는 대비와 선명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Maritain, 1966; Ramachandran & Hirstein, 1999; Solso, 1997; Tinio & Leder, 2009). 구체적으로, 기하학 도형을 활용한 연구는 미묘한 대비의 차이가 미적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명한 이미지가 덜 선명한 이미지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ber et al., 1998).

색. 색에 대한 선호는 색상, 채도, 명도라는 세 가지 요소에 따른 체계적인 패턴을 보인다. 색 패치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적색, 주황색, 황색과 같은 난색보다 녹색, 청록색, 청색과 같은 한색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중 특히 청색이 가장 선호되고 황색과 연두색이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채도가 매우 높은 색에 대한 선호가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였지만(Granger, 1955), 대체로 채도가 낮은 색보다 채도가 높은 색이 더 선호되었다(McManus et al., 1981; Ou et al., 2004; Palmer & Schloss, 2010). 그러나, 채도가 높은 색에 대한 선호는 성별, 문화,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달라졌다. 항상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명도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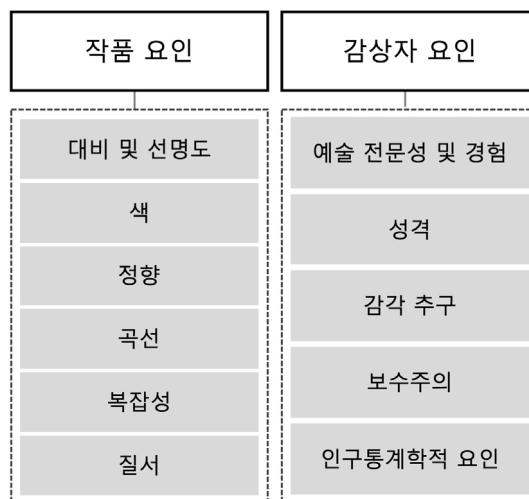


Figure 1. Summary of artwork and beholder factors

은 명도가 높은 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Guilford & Smith, 1959; McManus et al., 1981).

정향(orientation). Mondrian의 작품을 활용한 연구는 비스듬한 선보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atto et al., 2000).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사선보다 수평선과 수직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Switkes et al., 1978), 이는 우리 주변의 대다수 그림들이 비스듬한 선보다 수평선과 수직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추가로 뒷받침된다(Latto & Russell-Duff, 2002).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하위 수준의 시각 세부특징의 통계적 차원을 반영하는 시각 자극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곡선. 사람들은 직선형 형태보다 곡선형 형태를 선호한다. 이러한 곡선에 대한 선호는 오랜 시간 여러 실험적 증거들을 통해 일관되게 지지되어 왔다(Bertamini et al., 2016; Fantz & Miranda, 1975; Hevner, 1935; Jadva et al., 2010; Lundholm, 1920; Palumbo & Bertamini, 2016; Palumbo et al., 2015; Poffenberger & Barrows, 1924; Silvia & Barona, 2009; Velasco et al., 2016). 곡선 선호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넘어서 일상적인 물체(Bar & Neta, 2006; Corradi et al., 2019), 제품(Westerman et al., 2012), 차 내부 인테리어(Leder & Carbon, 2005), 가구(Dazkir & Read, 2012), 그리고 실내 건축(Vartanian et al., 2013; 2019)과 같은 실용적인 디자인에도 적용된다. 게다가, 나이, 문화, 종에 걸쳐서 이 곡선 선호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곡선이 미적 선호의 강력한 결정 요소라는 것을 시사한다(Fantz & Miranda, 1975; Gómez-Puerto et al., 2018; Jadva et al., 2010; Munar et al., 2015).

복잡성. 오래전부터 시각적 복잡성은 미적 선호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주목받아왔다(Jacobsen & Höfel, 2002; Tinio & Leder, 2009). Berlyne은 너무 낮거나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자극 대신, 중간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자극이 선호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몇몇 실험 결과들이 Berlyne이 제안한 복잡도와 미적 선호 사이의 역 U자형 관계에 대한 가설을 지지하였다(Aitken, 1974; Chassy et al., 2015; Forsythe et al., 2011; Güçlütürk et al., 2016; Hekkert & Van Wieringen, 1990; Imamoglu, 2000; Nicki, 1972).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복잡도와 선호 간의 선형 관계(Day, 1967; Eisenman, 1967; Friedenber &

Liby, 2016), 혹은 U자형 관계를 보고하였고(Adkins & Norman, 2016; Phillips et al., 2010), 두 요인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존재한다(Nadal et al., 2010).

이러한 상충되는 선행 연구 결과들은 몇몇 이론적이고 방법적인 어려움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Nadal et al., 2010). 예를 들어, 선행 연구들은 자극의 유형, 개수 및 범위와 같은 복잡성의 정의, 측정 및 조작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Marin & Leder, 2013; Nadal et al., 2010). 또한, 미적 선호에 미치는 복잡성의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Aitken, 1974; Güçlütürk et al., 2016; Jacobsen & Höfel, 2002; Tinio & Leder, 2009).

질서. 질서와 복잡성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혼동되지만, 이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복잡성은 정보의 양과 다양성을 가리키는 반면, 질서는 정보의 구조와 조직을 의미한다(Chetverikov & Kristjánsson, 2016; Van Geert & Wagemans, 2020). 질서는 다양한 유형을 갖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간주되며(Van Geert & Wagemans, 2020), 질서의 세부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개념들로 대칭과 균형을 들 수 있다.

먼저, 추상적인 패턴(Frith & Nias, 1974; Gartus & Leder, 2013; Jacobsen & Höfel, 2002; Julesz, 1971; Wright & Bertamini, 2015), 예술 작품(Locher & Nodine, 1987; Tyler, 2002), 그리고 인간의 얼굴(Cárdenas & Harris, 2006; Halberstadt & Rhodes, 2003; Rhodes et al., 1998)과 같은 다양한 자극들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대칭이 미적 선호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즉, 개인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비대칭보다 대칭을 일반적으로 더 선호한다(Jacobsen & Höfel, 2002). 게다가, 대칭 선호는 서로 다른 문화권과 종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Bode et al., 2017; Uduehi, 1995; Swaddle & Cuthill, 1994). 이러한 결과들은 미적 선호 메커니즘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처리 유창성 이론(processing fluency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대칭적인 자극은 비대칭적인 자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처리가 용이하므로 대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Garner & Clement, 1963; Reber et al., 2004).

대칭 외에도 균형은 미적 선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균형은 원, 육각형, 사각형과 같은 자극에 대한 선호도 평가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했다(Wilson & Chatterjee, 2005). 게다가, 시각적 균형은 미

적 평가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Hübner & Fillinger, 2016). 참가자들에게 시각적 디자인을 직접 만들도록 요청한 연구 결과, 사람들은 디스플레이의 기하학적 중심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지각적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Locher et al., 1998; 2001).

감상자 요인

작품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접근과 대조적으로, 일부 이론가들은 어떤 작품인지 보다 어떤 감상자가 그 작품을 감상하는지에 따라 미적 선호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생각은 “아름다움은 감상자의 눈에 달려있다”(Kubovy, 2000) 라는 표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실제로, 미적 반응이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작품의 요인만을 알아본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Eysenck의 연구(1940)에서 사람들의 미적 선호에는 체계적인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래로, 여러 연구에서 개개인은 서로 다른 독특한 미적 선호를 보인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보고되었다(Furnham & Walker, 2001a; 2001b; Jacobsen & Höfel, 2002). 이러한 미적 선호의 개인차는 감상자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각 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감상자 요인 선호에 대한 연구

예술 전문성과 경험. 미적 선호와 예술 작품 감상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예술 전문성이다(Hekkert & Van Wieringen, 1996; Neperud, 1986). 구체적으로, 비전문가들은 주로 작품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형태, 재료 및 표현적 특징에 중점을 덜 두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Gotschalk, 1962). 또한 비전문가들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대중 예술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왔다. 반면, 예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감상자들은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순수 예술을 선호하였다(Winston & Cupchik, 1992). 또한, 미적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에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어 왔으며, 이는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훈련의 영향을 보여준다(Eysenck, 1972; Gordon, 1923; Lindauer, 1990; Lund & Anastasi, 1928).

성격. 개인이 가진 성격과 미적 선호 간의 관련성이 탐구되어 왔으며, 특히 ‘성격의 5요인 모델’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Carroll & Enrich, 1932; Child, 1962; Rosenbluh et al., 1972; Tobacyck et al., 1979). 구체적으로,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은 미적 선호와 관련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개방성은 예술가들의 핵심적 특성으로 여겨지듯이(McCrae & Costa, 1997), 높은 개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예술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시각 예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선호와 흥미를 보인다(Chamorro-Premuzic & Furnham, 2004; Feist & Brady, 2004; Furnham & Avison, 1997; Rawlings, 2000; Rawlings et al., 1998). 또한, 개방성 점수가 높은 개인들은 예술과 예술 감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McManus & Furnham, 2006).

개방성 요인 이외에도, 다른 5요인 성격 특징들 역시 미적 선호 및 흥미와 연관되어 있다. 외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일부 연구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현대미술을 좋아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들은 그들이 현대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Eysenck, 1941; Furnham & Avison, 1997). 성실성은 전반적인 예술 활동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McManus, 2006), 팝 아트나 추상 미술보다 구상 미술에 대한 선호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Furnham & Walker, 2001a). 신경증은 팝 아트와 추상 미술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는 반면(Furnham & Walker, 2001b; Knapp & Wulff, 1963), 친화성은 팝 아트에 대한 낮은 선호 그리고 구상 미술에 대한 높은 선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urnham & Avison, 1997; Furnham & Walker, 2001a).

성격의 5요인뿐만 아니라, 지능(Chamorro-Premuzic & Furnham, 2004; Furnham & Chamorro-Premuzic, 2004), 과학적 태도(McManus, 2006; McManus & Furnham, 2006), 행동 접근과 억제(Rawlings & Bastian, 2002), 순응성(Feist & Brady, 2004)과 같은 다른 성격 특징들 역시 미적 선호와 관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각 추구. 감각 추구는 강렬하고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험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특징을 의미한다(Zuckerman, 1994). 감각 추구 성향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rnham & Avison, 1997; Zuckerman et al., 1993). 많은 연구들은 감각 추구 성향과 미적 선호를 연결시켜 왔으며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복잡한 다각형(Looft & Baranowski, 1971; Rawlings et al., 1998)과 비대칭적인 그림(Zuckerman et al., 1970)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높은 긴장감을 주는 풍경화(Zuckerman et al., 1993), 복잡한 추상화(Tobacyck et al., 1981; Furnham & Bunyan, 1988), 초현실주의 작품(Furnham & Avison, 1997)을 선호하고,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작품보다는 과격한 추상화 작품(Rawlings et al., 200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 심리적 보수주의는 전통적이고 순응적인 속성으로 특징 지어진다(Wilson & Patterson, 1968). 연구 결과, 보수주의는 단순하고 구상적인 그림에 대한 선호 및 복잡하고 추상적인 그림에 대한 비선호와 관련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Wilson & Patterson, 1969; Wilson et al., 1973). 또한, 독단적인 태도와 현대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간에도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Frumkin, 1963).

인구통계학적 요인.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며, 현대적이고 추상적인 그림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보고되었다(Frumkin, 1963; Furnham & Walker, 2001b). 그러나 최근에 수행된 대규모 연구는 남성과 여성 간에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와 태도에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McManus, 2006).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는 전통적이고 구상적인 그림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관찰되었다(Furnham & Walker, 2001b).

작품과 감상자 요인 간의 상호작용

이렇듯, 작품 요인과 감상자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미적 선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몇몇 현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작품과 감상자 요인이라는 이분법적인 논의가 아니라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진일보한 관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전에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에도 드러나듯이 예술 작품과 감상자 간의 영향은 이분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호작용 관점은, 작품과 이를 수용하는 감상자는 서로 역동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영향들의 일정한 패턴으로부터 미적 선호가 나타난다고 강조한다(Ingarden, 1985; Merleau-Ponty, 1964).

2000년대 초반, Leder와 동료들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미적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심리모델을 구축했

다(Leder et al., 2004; Leder & Nadal, 2014). 이 모델은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과정이 크게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처리 과정들의 병렬적 통합으로 나타나며, 세부적으로 ‘지각적 분석’, ‘기억 통합’, ‘명시적 분류’, ‘인지적 숙련’,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5단계 세부 과정으로 나뉜다고 제시하였다(Kim, 2015). 또한, 작품과 감상자 간 상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감상자 요인 중에서도 특히 예술 전문성에 집중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미적 감상 과정 중 인지적 과정에 속하는 후기 처리 3단계 - 명시적 분류, 인지적 숙련, 평가 - 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그림 2).

후기 처리 단계에서 작품과 전문성 간의 상호작용

예술 전문성은 미적 감상 과정 중에서 명시적 분류 단계에서의 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성이 증가할수록, 묘사된 대상을 식별하는 것에서 예술 특정한 범주에 따라 예술 작품을 분류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옮겨간다(Leder & Nadal, 2004). 전문가들은 예술 작품의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비전문가들은 작품의 내용 혹은 작품 외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Parsons, 1987; Winston & Cupchik, 1992). 선행 연구들은 예술 교육 수준이 높거나 갤러리를 더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이 추상화와 팝아트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Furnham & Walker, 2001a).

명시적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다시 말해, 예술 작품을 분류하고 개별 스타일을 인식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 축적된 여러 개념과 지식들을 필요로 하고, 이는 대개 학교에서의 교육 혹은 예술에 대한 토론을 통해 길러진다(Hartley & Homa, 1981; Parsons, 1987). 구체적으로, 예술 관련 전문가들은 아주 추상적인 그림에서도 작가의 스타일과 기저 원리들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Cupchik, 1992). 이러한 측면에서, 스타일에 기반한 처리는 전문성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겨진다(Winston & Cupchik, 1992).

명시적 분류 단계에 이어서 인지적 숙련과 평가 단계에서, 비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정서적 상태와 작품의 내용을 연합시키면서 자신과 관련된 인지적 정보에 기대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향이 있다(Parsons, 1987). 그러므로, 의미적 기억과 일화적 기억을 포함하여, 자극으로부터 연상되는 기억 혹은 대상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에 따라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과 선호가 달라진다(Martindale, 1984). 특히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전 경험과 명시적 지식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Zeki, 1999). 게다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와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미적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다(Temme, 1992). 이러한 발견은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이 인지적 숙련과 평가 단계에서 미적 감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처리 단계에서 작품과 전문성 간의 상호작용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Leder의 모델은 미적 감상의 후기 단계에서 전문성이 미적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한편, 지각적 분석과 기억 통합 단계를 포함하는 미적 감상의 초기 단계에서 전문성과 작품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우리가 그 작품을 볼 때 시작된다. 시지각은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고, 선행 지식, 기대, 해석에 기반한 자극과 감상자 간에 상호작용적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Neisser, 1967; Singer, 2013). 그러므로, 미적 감상의 가장 초기 단계인 지각적 분석 단계에서부터 작품과 감상자 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지각적 처리 과정이 강조되는 단계의 특성상, 미적 감상의 초기 단계에 대한 대다수 연구들은 작품 요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 들어 곡선, 복잡성, 대칭 등 기초 시각 요소에 대한 미적 선호 역시 개인의 예술 전문성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상호작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한 미적 감상 과정을 재고려해보면, 예술 작품 속의 지각적 요소를 분석한 이후 우리는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기억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기억은 사전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특히, 일상적인 상황 혹은 심미적인 경험이 강조되는 상황 등 여러 맥락에서의 경험은 기억 통합 단계에서의 요소, 이를 테면 친숙성, 유창성, 전형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der et al., 2004; Leder & Nadal., 2014). 오랜 시간 누적된 학습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은 비전문가들과 질적으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기억 통합 단계에서의 미적 선호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Song et al., 2021), 아직 관련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각적 분석과 기억 통합 단계를 포괄하는 미적 감상의 초기 단계에서 작품과 감상자가 상호작용하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향후 실험미학 연구의 방향

본 개관논문은 작품과 감상자 요인의 측면에서 실험미학 연구들이 발전해온 방향을 살펴보았다. 초기 연구들은 작품의 시각 요소들에 집중하였고 이후 연구들은 감상자가 지니는 속성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기 처리 단계에서 작품과 감상자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표 1). 이를 통해 미적 감상 과정의 일부 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미적 감상 과정의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더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실험미학 연구자들은 미적 선호의 기저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론을 토대로 탐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선호한다는 처리 유창성 이론(processing fluency theory)을 들 수 있다(Reber et al., 2004). 시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시각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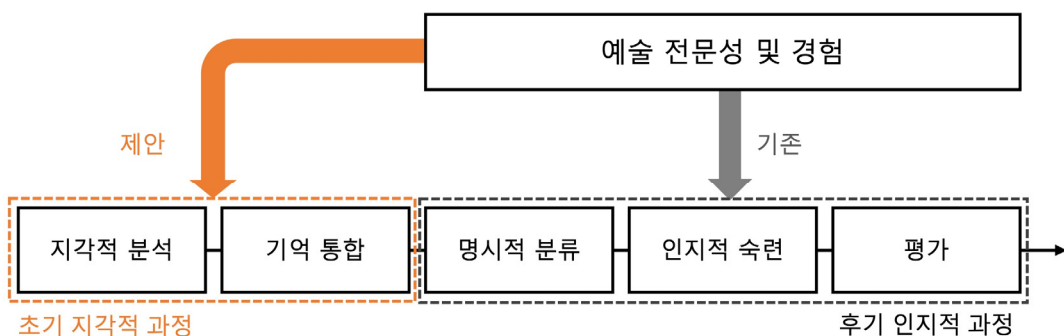


Figure 2. Diagram of the interaction between artwork and beholder factors.

Table 1. Outstanding questions

향후 연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적 분석 단계 내의 시각 요소(직선, 복잡도, 대칭 등)에 대한 선호는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까? • 기억 통합 단계 내의 주요 요소(친숙성, 예측불가능성 등)에 대한 선호는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까? • 전문성은 그 세부 종류(디자인, 순수 예술, 미술사 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보일까? • 미적 감상 과정의 초기 처리 단계에서의 작품과 감상자 요인 간 상호작용은, 후기 처리 단계인 맥락 요인(예. 자극만 제시 vs. 미술관 맥락 제시)에 의한 영향을 받을까? • 가상현실 상황에서 작품을 경험할 때, 초기 처리 단계에서 작품과 감상자 요인의 상호작용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와 차별적인 선호 양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반면, 사전 경험에 따라 예측이 형성되고, 예측에 기반하여 선호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예측코딩 모델(predictive coding theory)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Kesner, 2014; Van de Cruys & Wagemans, 2011). 이 모델에 의하면,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은 예술과 관련된 사전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예측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이한 미적 선호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

미적 선호뿐만 아니라 그 기저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사후 해석적이라는 한계를 지니며 해당 이론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들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초기 처리 단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들에서는 미적 선호의 메커니즘을 알아볼 수 있는 정밀한 실험 디자인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직접적인 행동 지표뿐만 아니라 시선 추적기(eye-tracker)를 이용한 간접적인 시선 지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적 선호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 기저 원리를 실험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들이 미적 선호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 것이라 기대하며 논문을 맺는다.

References

Adkins, O. C., & Norman, J. F. (2016). The visual aesthetics of snowflakes. *Perception*, *45*, 1304-1319.

Aitken, P. P. (1974). Judgments of pleasingness and interestingness as functions of visual complex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3*(2), 240-244. doi:10.1037/h0036787

Arnheim, R. (1974). *Art and visual percep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ar, M., & Neta, M. (2006). Humans prefer curved visual objects. *Psychological Science*, *17*(8), 645-648.

Berlyne, D. E. (1958). The influence of complexity and novelty in visual figures on orienting respons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5*(3), 289-296. doi:10.1037/h0043555

Berlyne, D. E. (1970). Novelty, complexity, and hedonic value. *Perception & Psychophysics*, *8*(5), 279-286. doi:10.3758/BF03212593

Berlyne, D. E. (1974). *Studies in the new experimental aesthetics: steps toward an objective psychology of aesthetic appreciation*. Washington, DC: Hemisphere.

Bertamini, M., Palumbo, L., Gheorghes, T. N., & Galatsidas, M. (2016). Do observers like curvature or do they dislike angular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7*(1), 154-178. doi:10.1111/bjop.12132

Bode, C., Helmy, M., & Bertamini, M. (2017). A cross-cultural comparison for preference for symmetry: comparing British and Egyptian non-experts. *Psihologija*, *50*(3), 383-402. doi:10.2298/PSII703383B

Cárdenas, R. A., & Harris, L. J. (2006). Symmetrical decorations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faces and abstract design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7*(1), 1-18. doi:10.1016/j.evolhumbehav.2005.05.002

Carroll, H., & Enrich, A. (1932). Abstract intelligence and art appreci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3), 214-220. doi:10.1037/h0072776

Chassy, P., Lindell, T. A. E., Jones, J. A., & Paramei, G. V. (2015). A relationship between visual complexity and aesthetic appraisal of car front images: An eye-tracker study. *Perception*, *44*, 1085-1097. doi:10.1177/0301006615596882

Chetverikov, A., & Kristjánsson, Á. (2016). On the joys of perceiving: Affect as feedback for perceptual predictions. *Acta Psychologica*, *169*, 1-10. doi:10.1016/j.actpsy.2016.05.005

Chamorro-Premuzic, T., & Furnham, A. (2004). Art judgment: A

- measure related to both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24(1), 3-24.
- Child, I. (1962). Personal preferences as an expression of aesthetic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30, 496-512.
- Corradi, G., Belman, M., Currò, T., Chuquichambi, E. G., Rey, C., & Nadal, M. (2019). Aesthetic sensitivity to curvature in real objects and abstract designs. *Acta psychologica*, 197, 124-130. doi:10.1016/j.actpsy.2019.05.012
- Cupchik, G. C. (1992). "From perception to production: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aesthetic process," in *Emerging visions of the aesthetic process: Psychology, semiology, and philosophy*, eds. G. C. Cupchik & J. Laszlo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83-99.
- Day, H. Y. (1967). Evaluations of subjective complexity, pleasingness and interestingness for a series of random polygons varying in complexity. *Perception & Psychophysics*, 2, 281-286.
- Dazkir, S. S., & Read, M. A. (2012). Furniture form and their influence on our emotional responses toward interior environments. *Environment and Behavior*, 44(5), 722-732. doi:10.1177/0013916511402063
- Eisenman, R. (1967). Complexity-simplicity: I. Preference for symmetry and rejection of complexity. *Psychonomic Science*, 8(4), 169-170.
- Eysenck, H. J. (1940). The general factor in aesthetic judgem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1(1), 94-102.
- Eysenck, H. J. (1941). 'Type'-factors in aesthetic judgem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1(3), 262-270.
- Eysenck, H. J. (1972). Personal preferences, aesthetic sensitivity and personality in trained and untrained su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40, 544-557. doi:10.1111/1467-6494.ep8970054
- Fantz, R. L., & Miranda, S. B. (1975). Newborn-infant attention to form of contour. *Child Development*, 46, 224-228. doi:10.2307/1128853
- Feist, G. J., & Brady, T. R. (2004). Openness to experience, non-conformity, and the preference for abstract art.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2(1), 77-89. doi:10.2190/Y7CA-TBY6-V7LR-76GK
- Forsythe, A., Nadal, M., Sheehy, N., Cela Conde, C. J., & Sawey, M. (2011). Predicting beauty: Fractal dimension and visual complexity in ar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2(1), 49-70.
- Friedenberg, J., & Liby, B. (2016). Perceived beauty of random texture patterns: A preference for complexity. *Acta Psychologica*, 168, 41-49.
- Frith, C. D., & Nias, D. K. B. (1974). What determines aesthetic preference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91, 163-173.
- Frumkin, R. M. (1963). Sex, familiarity, and dogmatism as factors in painting preferenc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7(1), 12. doi:10.2466/pms.1963.17.1.12
- Furnham, A., & Avison, M. (1997). Personality and preference for surreal painting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6), 923-935.
- Furnham, A., & Bunyan, M. (1988). Personality and art pre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1), 67-74. doi:10.1002/per.2410020106
- Furnham, A., & Chamorro-Premuzic, T. (2004). Personality, psychometric intelligence, and art judg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705-715.
- Furnham, A., & Walker, J. (2001a).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previous experience of art,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artistic prefer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6), 997-1017. doi:10.1016/S0191-8869(00)00202-6
- Furnham, A., & Walker, J. (2001b). Personality and judgement of abstract, pop art, and representational painting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1), 57-72
- Garner, W. R., & Clement, D. E. (1963). Goodness of pattern and pattern uncertaint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446-452.
- Gartus, A., & Leder, H. (2013). The small step toward asymmetry: Aesthetic judgment of broken symmetries. *i-Perception*, 4(5), 361-364.
- Gómez-Puerto, G., Rosselló, J., Corradi, G., Acedo-Carmona, C., Munar, E., & Nadal, M. (2018). Preference for curved contours across culture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12(4), 432. doi:10.1037/aca0000135
- Gordon, K. (1923). A Study of Esthetic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1), 36. doi:10.1037/h0071285
- Gotschalk, D. W. (1962). *Ar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Dover.
- Granger, G. W. (1955). An experimental study of colour preference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52(1), 3-20. doi: 10.1080/00221309.1955.9918340
- Güçlütürk, Y., Jacobs, R. H., & Lier, R. V. (2016). Liking versus complexity: Decomposing the inverted U-curve.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10, 112. doi:10.3389/fnhum.2016.00112

- Guilford, J. P., & Smith, P. C. (1959). A system of color-preferenc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72(4), 487-502. doi:10.2307/1419491
- Halberstadt, J., & Rhodes, G. (2003). It's not just average faces that are attractive: Computer-manipulated averageness makes birds, fish, and automobiles attractive.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0(1), 149-156. doi:10.3758/BF03196479
- Hekkert, P., & Van Wieringen, P. C. (1990). Complexity and prototypicality as determinants of the appraisal of cubist painting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1(4), 483-495.
- Hekkert, P., & Van Wieringen, P. C. (1996). Beauty in the eye of expert and nonexpert beholders: A study in the appraisal of art.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09, 389-407. doi:10.2307/1423013
- Hevner, K. (1935). Experimental studies of the affective value of colors and lin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4), 385-398. Doi:10.1037/h0055538
- Hübner, R., & Fillinger, M. G. (2016). Comparison of objective measures for predicting perceptual balance and visual aesthetic preference. *Frontiers in Psychology*, 7, 335. doi:10.3389/fpsyg.2016.00335
- Imamoglu, C. (2000). Complexity, liking and familiarity: architecture and non-architecture Turkish students' assessments of traditional and modern house facad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1), 5-16. doi:10.1006/jev.1999.0155
- Ingarden, R. (1985). *Selected papers in aesthetics* (P. J. McCormick, Ed.).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Jacobsen, T., & Höfel, L. (2002). Aesthetic judgments of novel graphic patterns: Analyses of individual judgm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5(3), 755-766.
- Jadva, V., Hines, M., & Golombok, S. (2010). Infants' preferences for toys, colors, and shapes: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1261-1273. doi:10.1007/s10508-010-9618-z
- Julesz, B. (1971). *Foundations of Cyclopean perception*.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Kesner, L. (2014). The predictive mind and the experience of visual artwork. *Frontiers in Psychology*, 5. doi:10.3389/fpsyg.2014.01417
- Kim, C-Y. (2015). Neuroaesthetics now - Development and prospect.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7, 341-365.
- Kubovy, M. (2000). Visual aesthetics. In A. E. Kazdin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 8, pp. 188-19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tto, R., Brain, D., & Kelly, B. (2000). An oblique effect in aesthetics: Homage to Mondrian (1872-1944). *Perception*, 29, 981-987.
- Latto, R., & Russell-Duff, K. (2002). An oblique effect in the selection of line orientation by twentieth century painter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0(1), 49-60.
- Leder, H., Belke, B., Oeberst, A., & Augustin, D. (2004).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4), 489-508. doi:10.1348/0007126042369811
- Leder, H., & Carbon, C. C. (2005). Dimensions in appreciation of car interior desig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19, 603-618. doi:10.1002/acp.1088
- Leder, H., & Nadal, M. (2014). Ten years of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The aesthetic episode-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empirical aesthet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5(4), 443-464. doi:10.1111/bjop.12084
- Lindauer, M. S. (1990). Reactions to cheap art.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8, 95-110.
- Lund, F. H., & Anastasi, A. (1928). An interpretation of aesthetic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0, 434. doi:10.2307/1414460
- Locher, P. J., Cornelis, E., Wagemans, J., & Stappers, P. J. (2001). Artists' use of compositional balance for creating visual display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19(2), 213-227. doi:10.2190/EKMDYMN5-NJUG-34BK
- Locher, P. J., Stappers, P. J., & Overbeeke, K. (1998). The role of balance as an organizing design principle underlying adults' compositional strategies for creating visual displays. *Acta Psychologica*, 99(2), 141-161. doi:10.1016/S0001-6918(98)00008-0
- Looft, W. R., & Baranowski, M. D. (1971). An analysis of five measures of sensation seeking and preference for complexit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5(2), 307-313. doi:10.1080/00221309.1971.9920680
- Lundholm, H. (1920). The affective tone of lines: Experimental researches. *Psychological Review*, 28(1), 43-60. doi:10.1037/h0072647
- Marin, M. M., & Leder, H. (2013). Examining complexity

- across domains: relating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affective environmental scenes, paintings and music. *PLoS ONE*, 8, e72412. doi:10.1371/journal.pone.0072412
- Maritain, J. (1966). Beauty and imitation. In M. Rader (Ed.), *A modern book of Esthetics* (3rd ed., pp. 27-34).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McCrae, R., & Costa, P. T., Jr. (1997). Conceptions and correlates of openness to experience. In S. R. Briggs, R. Hogan & W. H. Jone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825-847). San Diego, USA: Academic Press.
- McManus, I. (2006). Measuring the culture of C. P. Snow's two culture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4, 219-227.
- McManus, I., & Furnham, A. (2006). Aesthetic activities and aesthetic attitudes: Influences of education, background and personality on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 ar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7(4), 555-587.
- McManus, I. C., Jones, A. L., & Cottrell, J. (1981). The aesthetics of colour. *Perception*, 10(6), 651-666.
- Merleau-Ponty, M. (1964). *The primacy of perception, and other essays on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he philosophy of art, history, and politics*.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Munar, E., Gomez-Puerto, G., Call, J., & Nadal, M. (2015). Common visual preference for curved contours in humans and great apes. *PLoS ONE*, 10, e014110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1106>
- Nadal, M., Munar, E., Marty, G., & Cela-Conde, C. J. (2010). Visual complexity and beauty appreciation: Explaining the divergence of result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8(2), 173-191. doi:10.2190/EM.28.2
- Neisser, U. (1967). *Cognitive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Neperud, R. W. (1986). The relationship of art training and sex differences to aesthetic valuing. *Visual Arts Research*, 12, 1-9.
- Nicki, R. M. (1972). Arousal increment and degree of complexity as incentiv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63(2), 165-171.
- Locher, P. J., & Nodine, C. (1987). Symmetry catches the eye. In J. K. O'Regan & A. Levy-Schoen (Eds.), *Eye movements: From physiology to cognition* (pp. 353-361).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Knapp, R. H., & Wulff, A. (1963). Preferences for abstract and representational ar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0(2), 255-262. doi:10.1080/00224545.1963.9922196
- Koffka, K. (1922). Perception: an introduction to the Gestalt-Theorie. *Psychological bulletin*, 19(10), 531. doi:10.1037/h0072422
- Ou, L. C., Luo, M. R., Woodcock, A., & Wright, A. (2004). A study of colour emotion and colour preference. Part III: Colour preference modeling. *Color Research & Application*, 29(5), 381-389.
- Palmer, S. E., & Schloss, K. B. (2010). An ecological valence theory of human color prefer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 8877-8882.
- Palmer, S. E., Schloss, K. B., & Sammartino, J. (2013). Visual aesthetics and human prefer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77-107.
- Palumbo, L., & Bertamini, M. (2016). The curvature effect : A comparison between preference task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34(1), 35-53. doi.org/10.1177/0276237415621185
- Palumbo, L., Ruta, N., & Bertamini, M. (2015). Comparing angular and curved shapes in terms of implicit associations and approach/avoidance responses. *PLoS ONE*, 10, e0140043. doi:10.1371/journal.pone.0140043
- Parsons, M. J. (1987). *How we understand art: A cognitive developmental account of aesthetic experience*.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illips, F., Norman, J. F., & Beers, A. M. (2010). Fechner's aesthetics revisited. *Seeing and Perceiving*, 23(3), 263-271. doi:10.1163/187847510X516412
- Poffenberger, A. T., & Barrows, B. E. (1924). The feeling value of lin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187-205. doi:10.1037/h0073513
- Ramachandran, V. S., & Hirstein, W. (1999). The science of art: A neurological theory of aesthetic experienc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6, 15-51.
- Rawlings, D. (2000). The interaction of openness to experience and schizotypy in predicting preference for abstract and violent painting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18(1), 91.
- Rawlings, D., & Bastian, B. (2002). Painting preference and personalit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ray's behavioral inhibition and behavioral approach system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0(2), 159-175.
- Rawlings, D., Twomey, F., Burns, E., & Morris, S. (1998). Personality, creativity, and aesthetic preference: Comparing psychoticism, sensation seeking, schizotypy, and openness to experience.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16(2), 153-178.
- Rawlings, D., Vidal, N. B. I., & Furnham, A. (2000). Personality

- and aesthetic preference in Spain and England: Two studies relating sensation seeking and openness to experience to liking for paintings and music.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6), 553-576.
doi:10.1002/1099-0984(200011/12)14:6<553::AID-PER384>3.0.CO;2-H
- Reber, R., Schwarz, N., & Winkielman, P. (2004). Processing fluency and aesthetic pleasure: Is beauty in the perceiver's processing experi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4), 364-382. doi: 10.1207/s15327957pspr0804_3
- Reber, R., Winkielman, P., & Schwarz, N. (1998). Effects of perceptual fluency on affective judgments. *Psychological Science, 9*(1), 45-48.
- Rhodes, G., Proffitt, F., Grady, J. M., Sumichm, A. (1998). Facial symmetry and the perception of beauty.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5*, 659-669. doi:10.3758/BF03208842
- Rosenbluh, E., Owen, G., & Pohler, M. (1972). Art preference and personal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63*(3), 441-443.
- Silvia, P. J., & Barona, C. M. (2009). Do people prefer curved objects? Angularity, expertise, and aesthetic preference.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7*(1), 25-42.
doi:10.2190/EM.27.1.b
- Singer, W. (2013). Cortical dynamics revisited.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7*, 616-626. doi:10.1016/j.tics.2013.09.006
- Skov, M., & Nadal, M. (2020). A farewell to art: Aesthetics as a topic in psychology and neurosc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5*, 630-642.
doi:10.1177/1745691619897963
- Solso, R. L. (1997). *Cognition and the visual arts*. Cambridge, MA: MIT Press.
- Song, J., Kwak, Y., & Kim, C. Y. (2021). Familiarity and novelty in aesthetic preference: The effects of the properties of the artwork and the beholder. *Frontiers in psychology, 12*:694927. doi:10.3389/fpsyg.2021.694927
- Swaddle, J. P., & Cuthill, I. C. (1994). Preference for symmetric males by female zebra finches. *Nature, 367*, 165-166.
- Switkes, E., Mayer, M. J., & Sloan, J. A. (1978). Spatial frequency analysis of the visual environment: Anisotropy and the carpentered environment hypothesis. *Vision research, 18*, 1393-1399.
- Temme, J. E. (1992). Amount and kind of information in museums: Its effect on visitors satisfaction and appreciation of art. *Visual Arts Research, 18*, 74-81.
- Tinio, P. P., & Leder, H. (2009). Just how stable are stable aesthetic features? Symmetry, complexity, and the jaws of massive familiarization. *Acta Psychologica, 130*(3), 241-250.
- Tobacyck, J., Myers, H., & Bailey, L. (1979). Preference for paintings and personality traits. *Psychological Reports, 45*(3), 787-793.
- Tobacyck, J. J., Myers, H., & Bailey, L. (1981). Field-dependence, sensation seeking and preference for pain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3), 270-277.
- Tyler, C. W. (2002). The human expression of symmetry. In C. W. Tyler (Ed.), *Human symmetry perception and its computational analysi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Uduchi, J. (1995). A cross-cultural assessment of the Maitland Graves Design Judgment Test using U.S. and Nigerian subjects. *Visual Arts Research, 21*, 11-18.
- Van de Cruys, S., & Wagemans, J. (2011). Putting reward in art: A tentative prediction error account of visual art. *i-Perception, 2*, 1035-1062. doi:10.1068/i0466aap
- Van Geert, E., & Wagemans, J. (2020). Order, complexity, and aesthetic appreciation.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14*(2), 135. doi:10.1037/aca0000224
- Vartanian, O., Navarrete, G., Chatterjee, A., Fich, L. B., Leder, H., Modrono, C., & Skov, M. (2013). Impact of contour on aesthetic judgments and approach-avoidance decisions in architectur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0*, 10446-10453. doi:10.1073/pnas.1301227110
- Vartanian, O., Navarrete, G., Chatterjee, A., Fich, L. B., Leder, H., Modroño, C., Rostrup, N., Skov, M., Corradi, G., & Nadal, M. (2019). Preference for curvilinear contour in interior architectural spaces: Evidence from experts and nonexpert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13*(1), 110-116. doi:10.1037/aca0000150
- Velasco, C., Salgado-Montejo, A., Elliot, A. J., Woods, A. T., Alvarado, J., & Spence, C. (2016). The shapes associated with approach/avoidance words. *Motivation and Emotion, 40*, 689-702. doi:10.1007/s11031-016-9559-5
- Westerman, S., Gardner, P. H., Sutherland, E. J., White, T., Jordan, K., Watts, D., & Wells, S. (2012). Product design: Preference for rounded versus angular design elements. *Psychology and Marketing, 29*(August), 595-605.
doi:10.1002/mar
- Wilson, G. D., Ausman, J., & Matthews, T. R. (1973).

- Conservatism and art pre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2), 286-289.
doi:10.1037/h0033972
- Winston, A. S., & Cupchik, G. C. (1992). The evaluation of high art and popular art by naive and experienced viewers. *Visual Arts Research*, 1, 1-14.
- Wilson, A., & Chatterjee, A. (2005). The assessment of preference for balance: Introducing a new test.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3(2), 165-180.
doi.org/10.2190/B1LR-MVF3-F36X-XR64
- Wilson, G. D., & Patterson, J. R. (1968). A new measure of conservatism.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4), 264-269.
doi:10.1111/j.2044-8260.1968.tb00568.x
- Wilson, G. D., & Patterson, J. R. (1969). Conservatism as a predictor of humour prefer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3), 271-274.
doi.org/10.1037/h0027582
- Winston, A. S., & Cupchik, G. C. (1992). The evaluation of high art and popular art by naive and experienced viewers. *Visual Arts Research*, 1, 1-14.
- Wright, D., & Bertamini, M. (2015). Aesthetic judgements of abstract dynamic configurations. *Art & Perception*, 3(3), 283-301. doi:10.1163/22134913-00002037
- Zeki, S. (1999). *Inner vi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uckerman, M. (1994). *Behaviou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ckerman, M., Neary, R. S., & Brustman, B. A. (1970). Sensation-seeking scale correlates in experience (smoking, drugs, alcohol, 'hallucinations' and sex) and preference for complexity (designs). *Proceedings of the 7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317-3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uckerman, M., Ulrich, R. S., & McLaughlin, J. (1993). Sensation seeking and reactions to nature setting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5), 563-576.

미적 선호에 대한 실험미학 연구 개관: 작품과 감상자 요인 및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송지원¹, 김채연¹

¹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실험적인 심리학 방법을 토대로 사람들의 미적 선호를 탐구하기 위해 태동한 실험미학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본 개관논문은 작품 요인과 감상자 요인, 그리고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실험미학 연구가 발전해온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초기에는 예술 작품에 내재된 보편적인 미적 기준에 의해 미적 선호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하였으나, 일부 연구들은 미적 선호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작품과 감상자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미적 선호를 형성한다는 진보된 관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미적 감상 과정 중 후기 인지적 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초기 지각적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험미학 분야의 실험적 연구와 미적 감상 모델의 맹점을 짚어보고, 향후 실험미학 연구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실험미학, 예술, 선호, 작품, 감상자